

죽음의 문턱서 만난 '하나님'

참존화장품 김광석 회장

화장품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던 참존화장품 김광석회장(51·소망교회). 젊은 날의 김회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가 신앙인으로 돌아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운명이었다. 성대 약학과를 졸업한 그는 종로 피보약국을 경영하면서 장안의 유명인이 됐다. 피부를 보호한다는 뜻의 피보약국은 예뻐지기 원하는 여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날로 번창했다. 약을 팔아 번 돈으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도봉산 기슭에 절을 짓는 것이었다. 1천여명의 신도가 모여들었고 신도회 회장을 맡았다. 어머니는 승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온 집안은 철저히 타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피보약국이 유명해지면서 전국 약사들이 그를 방문했다. 직접 조제해 팔고 있는 약을 나눠달라는 것이었다. 그 역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괜찮겠다 싶어 전국 60군데에 약을 조달했다.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무허가 제약으로 보건범죄단속법에 걸린 것이다. 모르고 한 일이지만 법이 허락할 리가 없었다.

79년 '잘나가던 약사'에서 '도망자'로 변신한 그는 전국 절을 찾아다니며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6개월을 피하다가 더이상 갈 곳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양산 통도사의 쉼처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텅빈 방안에 빛바랜 신문 한장만이 그를 반겼다. 다름아닌 6개월전 자신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다. 갑자기 울분이 솟구쳤다.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한심했다. 신문을 움켜쥔 채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뿜어내는 듯 했다. 갑자기 입술이 열리며 하나의 단어가 입밖으로 튀어나왔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하나님'이었다.

절을 내려와 자수를 한 후 그의 삶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매일 성경공부를 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기초전문화장품회사인 '참존'이었다. 기도중에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된 사업은 이색적인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모든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화장품 업계에 김회장의 신화가 생긴 것이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일조의 역사죠" 사업가가 십일조를 한다고 하면 모두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먼저 했다. 그러나 십일조는 그에게 놀라운 간증이 됐다. 정확한 십일조 후에는 신기하게도 매번 두배의 경제적 축복이 쏟아졌다. 김회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십일조 축복론'을 강의한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2권 5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12월17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전도서11:1)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다. 빵은 물 위에 던질 것이 아니고, 빵은 식탁 위에 올라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속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똑같이 있다. "선행을 하라. 그리고 네 빵을 물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되리라"

이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중동의 어떤 도시에서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거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왕이 자기 군대를 총동원해서 왕자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아들을 잃은 왕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 뜻밖에 어느 강의 바위 위에서 왕자가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더니 아침저녁으로 가족 주머니가 떠내려오더라. 그래서 이 주머니를 건져 보면 그 속에 빵이 들어 있곤 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왕자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 가족 주머니를 떠내려 보낸 사람에게 왕은 많은 상금을 내려 주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말씀을 보겠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썩어 버리고 만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나 남에게 주면 괜찮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귀한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던져야 한다. 그것을 물 위에 던질 때 우리는 낭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치 있는 목적과 귀한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던질 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살자.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1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5(강림절 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33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이영권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2:19-22

주 일 학 교

아 동 부

Sunday School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영화로신 주 예수의'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82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2월 예배 위원>

일 자	헌금위원	기 도	teatime봉사
12/3	최윤호, 송정섭	신 경 화	김영길, 이영권
10일	김효권, 이영주	이 경 석	정재정, 이상욱
17일	이경석, 한은영	이 영 권	최재학, 이경석
24일	최재학, 노은숙	이 선 우	김효권, 김성국
31일	김영길, 신경화	최 재 학	김교섭, 최윤호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 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 화요일 새벽기도회  
\*선 교: 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 수요일예배 7:30pm(ST. Stephens) | 화요일새벽기도: 6:00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지난주: 사무엘하 1명, 열왕기상 2명

2. 공동의회

Tea time 후 재정보고를 위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공동의회 참가자격: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장로회  
헌법 13장 86조)

3. 성탄축하 "Christmas in the family"

\*일시: 24일(주일) 저녁 7시  
\*장소: Adria  
\*초대장을 이용해 1-2가정씩만 초대하여 주십시오  
(초대대상: 성탄절 이브를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는 이웃)

4. 성탄절 예배(25일)

\*성탄절예배는 12시 교회에서 드립니다

5. 직분임명을 1월 첫주로 연기합니다

\*다음주일에 가질 직분 임명을 1월 첫주일로 연기합니다.

6.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 성경, 찬송"  
<주일저녁> "가정 예배"(예배문) 정착

7. 정기 가정심방: 내년부터 월 1회 "가정심방"제도를 갖습니다(안내문 참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8. 12월의 교회력

성찬식(3), 공동의회(17), 직분임명(24), 성탄절이브(24), 성탄예배(25), 송구영신예배(31)  
송구영신예배(31)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요즘은 주일마다 십일조를 내는 그는 새  
해 첫날이면 선교헌금을 작정한다. 버는 만큼 베풀고 살자는 것  
은 신앙을 가지면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매주 월요  
일이면 그의 비서실은 단체, 개척교회 등 20여 군데가 넘는 곳에  
후원금을 보내는 일로 분주하다. 이일은 벌써 10년째 계속되고  
있다.